

세속적 소비주의의 극복을 위한 개혁주의의 실천

양희석¹⁾

<논문초록>

종교개혁으로 인해 중세 후기의 상업은 활발하게 발달할 수 있었는데, 그것에는 칼빈의 영향이 컸다. 칼빈은 상업도 성직이나 다름없으며, 이익을 추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서구에는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거대 자본주의체제가 구축되었다. 즉, 현대 자본주의 경제에는 대량생산-대량판매-대량소비의 체제가 구축되었다.

그런데 이러한 현대 자본주의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대량소비, 과소비를 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었다. 소비주의가 자본주의의 지배적인 영향력으로 존재하게 된 것이다. 현대 포스트모더니즘 시대에서 소비주의는 가장 두드러진 세속주의의 한 현상으로 등장했다. 소비주의는 현대 자본주의 사회를 지배하고 있으므로 현대 기독교인들과 교회가 가장 경계해야 할 세속적 물질주의라 하겠다.

중세의 종교개혁은 기독교신자의 신앙을 갱신하고, 그들을 성경과 하나님께로 돌아가 경건하게 살도록 했던 경건 운동이었다. 오늘날 거대한 소비 자본주의로부터 거센 도전을 받고 있는 기독교인과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종교개혁의 유산인 개혁주의의 원리와 정신이 요청된다. 칼빈의 정신과 개혁주의 원리는 범사를 하나님의 주권 하에 둘 것이며, 하나님 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것을 경계하며, 기독교인들과 교회를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살아가도록 도울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주제어 : 개혁주의, 소비주의, 하나님의 주권, 칼빈의 중심사상, 경건의 실천

1) 한국교통대학교 인문사회대학 경영통상복지학부 국제통상학과 교수

I. 서언

소비주의가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인들과 기독교인들을 지배하고 있다. 소비주의는 포스트모더니즘 시대에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세속주의의 하나로서 맘몬주의, 우상숭배나 다름없다(윤종훈, 258). 소비주의는 기독교인들이 하나님 보다 물질과 돈을 더 중시하고, 그들을 그 속에 빠뜨리고 마는 것이다. 소비주의는 현대 기독교인과 교회가 가장 경계해야 할 세속주의이다. 그것은 소비를 미덕으로 여기며, 정부의 정책과 활발한 기업 마케팅 활동을 통해 우리의 생활 속에 자연스럽게 스며 들어 와 있기 때문이다(김선일, 22).

칼빈을 비롯한 종교개혁자들이 고무시했던 상업 활동이 오늘날 거대 자본주의 시스템으로 발전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는 소비주의로 확산되리라고는 그들 중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을 것이다. 종교개혁은 신앙을 갱신하고, 신자를 성경과 하나님께로 돌아가 경건하게 살도록 하고자 한 영적 혁신 운동이었다. 그런 의도와는 달리 현대 기독교인들은 자본주의와 물질의 풍요를 누리면서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지고 있다는 것은 역사의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개혁주의란 16세기 종교개혁자들의 이념과 신조를 말하는데, 종교개혁자들이 자신들을 일컫기 위해 가장 먼저 사용한 이름은 복음주의였다. 종교개혁 초기에 개혁의 지지자들은 그들의 교회를 원래의 신적 질서와 생활을 회복했다는 의미에서 자주 개혁된, 교정된, 정화된 교회로 불렀다.

개혁주의의 기원은 결코 화란이나 장로교가 발전한 스코틀랜드에 있는 것이 아니다. 개혁주의 전통은 16세기 초와 중엽에 유럽의 다양한 종교개혁의 흐름들이 하나로 모여 형성되었다(Hesselink, 24). 오늘날 개혁주의는 칼빈의 정신과 사상을 일컫는 것으로 칼빈주의와 동의어로 사용된다(문병호, 61). 또한 참된 개혁주의 교회의 특징은 계속적으로 개혁하고 있는 교회이다. 참된 개혁주의 교회는 신앙을 항상 새롭게 고백한다(Hesselink, 32).

이에 본 연구에서는 오늘날 기독교인과 교회를 위협하고 있는 소비주의의 확산 현상을 살펴보고, 종교개혁적 전통인 개혁주의 원리와 실천을 통해 세속적 소비주의의 극복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II. 세속적 소비주의의 극복을 위한 모색

1. 세속적 소비주의의 확산

오늘날 기독교와 세계의 교회는 그 어떤 강력한 권력 보다 더 강력한 위협에 도전받고 있다. 이 위협은 세속주의의 발흥이다. 세속주의는 그것의 정도와 강도에서 점점 세력을 확장해 왔다(Osterhaven, 224). 유럽에서는 현 시대를 종종 후기 기독교 시대라 부른다. 미국은 교인수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별로 부요하지 못하다. 이런 현상은 우리 시대의 탄식할만한 세속주의 때문이다.

예수님 이후로 기독교는 기독교를 위협하는 것들에 의해 이교와 이단으로 변질되었다. 이런 종교적 퇴폐와 후퇴로부터 건져낸 것이 종교개혁이다. 기독교는 종교개혁으로 인해 종교적 쇠신은 이루었지만, 그 후에 등장한 계몽주의와 인본주의, 산업혁명과 자본주의, 인간 중심과 물질숭상의 소비주의로부터 더 강력한 도전을 받고 있다.

오늘날 세계적으로 확산된 자본주의는 전 세계적인 시장의 원리를 확대시켰다. 이제는 시장의 원리도 세계화, 보편화, 절대화되었다. 전통적 가치관이 사라지고 모든 것, 심지어 인간까지도 상품화되어 시장가치, 교환가치로 평가되었다. 시장경제는 소비를 활성화시키고, 소비주의의 확산을 부추긴다. 오늘날 소비주의는 시장경제의 활성화와 함께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소비주의는 하나의 세계관이며 자본주의 종교의 신앙이다(강성영, 204). 오늘날 소비사회는 바로 이러한 소비주의의 지배를 받고 있다. 서구의 위대한 두 가지 계명은 “소비하라 더 크게 갈망하라”이다. 서구는 돈

과 물질 소유로 대변되는 자본주의 이데올로기가 지배하는 세상이 됐다. 그 결과 서구교회는 무섭도록 물질주의와 소비주의에 자신들을 순응시켜 왔다.

소비주의 사회는 의식주의 기본적인 필요를 넘어서 '잉여와 사치'를 추구하는 소비자본주의 사회이다. 상품의 가치가 인간적 가치 보다 더 중요한 것이 된다. 소비주의 사회는 '신과 같이 되려는' 인간을 양산하고 있다. 즉, 욕구에 사로잡혀 주어진 한계를 알지 못하는 소위 소비인간을 만들어 내고 있는 것이다. 오늘날 소비주의는 하나의 신앙이며 종교다(강성영, 210). 구체적으로 약은 바로 개인적 차원에서는 소유와 소비의 탐욕이며, 집단적으로는 상품과 자본에 대한 우상숭배에서 초래되는 비인간화이다.

이러한 소비주의사회의 특성은 아래와 같이 몇 가지의 관점에서 요약해 볼 수 있을 것이다.

- . 소비주의사회는 의식주의 기본적인 필요를 넘어서 과잉소비가 정점에 달해있다.
- . 소비주의사회에서는 광고를 통해서 소비대중의 허구적, 상상적 욕구를 재생산한다.
- . 소비주의사회에서는 인간됨의 진정한 가치와 정체성은 상품의 가치에 밀려서 왜곡되었다.
- . 소비주의사회에서 더욱 심각한 문제는 생태악이 자연과 인류의 미래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 . 소비인간은 상품이 주는 과잉실재에 대한 허위욕구에 매인 종속적 존재이다.
- . 소비인간은 한계를 넘어서 욕구의 충족을 추구하는 지칠 줄 모르는 탐욕의 화신이다.
- . 소비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 그의 욕구와 충족 가능성을 추구한다.
- . 소비인간은 소비에 익숙하도록 본능을 자극하는 광고를 통해 수동적 주체(소비시민)로 형성된다.

이와 같은 세속적 소비주의사회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 바로 구원이며, 개혁주의의 과제이기도 한 것이다(강성영, 212).

2. 개혁주의 실천의 필요성

오늘날 기독교에 대한 도전이 거세다. 물질주의, 소비주의, 이성주의, 과학적 판단, 이단과 이교의 유혹, 물질적 풍요, 문화적 도전, 불신풍조의 조장, 권위와 거룩함을 경시하는 풍조로 인해 사람들의 발걸음이 교회로 향하지 않게 되어 점차 교회가 사라지고 있다. 말씀이 가르쳐지지 않고, 경건에 이르는 삶이 사라지고, 세속주의, 스포츠, 미디어의 광풍, 경제적 풍요, 하나님이 주신 물질의 축복, 산업 및 정보화 혁명, 기술의 진보, 문화적 발달 등으로 인해 서구의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 물질에 취해 하나님을 잊어 버렸다. 현세의 달콤함이 그들을 세속주의의 바다에 빠뜨려 버렸다.

중세의 종교개혁은 비단 천주교로부터만 교인을 구한 것은 아니었다. 사람과 사회를 하나님께로 돌려 놓으려는 삶의 모든 부분에 대한 혁신이었다. 즉, 하나님 중심의 예배, 교회의 회복, 삶의 회복, 소명, 경건한 삶을 실현하고자 하는 거대한 운동이었다. 그런데 당시의 물질은 오늘날처럼 풍요롭지는 못했다. 중세 상업과 상인의 활동이 활발하긴 했지만, 산업혁명과 기술혁신을 통해 대량생산과 소비가 이루지는 거대 자본주의 체제는 아니었다.

오늘의 상황이 당시와 다른 점은 물질과 소비가 지배하는 거대 자본주의 사회라는 점이다. 기업의 광고와 정부의 정책을 통해 소비주의가 자연스럽게 사람들의 의식과 삶 속으로 들어 와 자리 잡고 있다. 소비주의의 신이 지배하는 사회가 되었다. 광고는 물질의 신을 주입하고 있는 것이다. 육신적인 평안과 쾌락을 조장하고 있다. 돈이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약속을 하고 있다(강성영, 204).

개혁은 중세의 종교개혁 때만 필요했던 것이 아니다. 당시는 천주교라는 이교의 세력으로부터 신자들을 지켜냈지만, 오늘날엔 세속주의로부터 기독교인들과 교회를 구해 내야 한다. 한국교회와 서구교회가 공히 세속화와 소비주의의 도전 속에 탈출구를 찾지 않으면 안 된다. 그 하나의 대안으로서 종교개혁의 유산인 개혁주의의 실천을 제안하고자 한다.

III. 개혁주의의 실천

1. 구속의 실천

칼빈주의 5대교리 중 두드러진 항목은 전적 부패이다. 원래적 부패로부터 모든 실제적 범죄가 발생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인간의 부패한 본성에서는 오직 저주받을 것들만 나온다. 타락의 결과 모든 사람은 죄 중에서 잉태되었으며 진노의 자식이며 구원받을 만한 선을 행할 수 없고, 악에 빠지기 쉬우며, 죄의 노예로 출생했다(도르트 신경)(Hesselink, 78).

칼빈주의 세계관은 창조와 타락에 대한 해결책으로 구속을 말한다. 인간과 모든 사물은 하나님의 은총으로 원래 창조의 선한 의도대로 회복될 것이다. 이러한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육신 사건을 통해 일어날 것으로 말한다.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전적이며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구원받게 된다. 무조건적으로 이루신 구원이므로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 성도는 이런 믿음 가운데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좇는 삶을 살아야 한다(문병호, 83-84).

2. 경건의 실천

칼빈주의자들은 죄를 심각하게 다루지만, 경제적 영역과 그 외의 영역에서는 진보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Hesselink, 70). 칼빈은 루터와는 달리 상업을 인정했다. 칼빈은 물건의 교환을 사회를 통한 하나님의 은사의 전파를 위해 필요한 것으로 생각했다(Graham, 109). 칼빈주의 전통이란 성경적인 개혁주의적 세계관이라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Hesselink, 112). 칼빈의 목표는 그리스도의 주권을 삶의 모든 영역에서 드러내는 것이다(Hesselink, 108).

칼빈은 모든 사회와 경제적 문제들에 있어서 공의와 자선이 그리스도인의 실제적 규범이라고 주장했다(Graham, 134).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와 마찬가지로 소비에 있어서도 사랑의 규칙을 경제적 표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확고하게 고수했다. 후기 중세의 상업이 아주 많은 세대에 걸쳐 영향을 미쳤었지만, 신학에 비추어 긍정적인 면을 통찰한 최초의 인물은 칼빈이었다. 칼빈은 사회 경제적 문제에 대한 표준을 사랑의 규칙, 공의의 표준으로 판단했다(Graham, 134-138).

바울은 자족하는 마음과 탐욕의 위협에 대해 경고한다. 바울은 탐욕과 욕심에 중독된 사람들, 그것으로 인해 파멸의 길로 치닫고 있는 자들을 책망하고 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그 어떤 욕망에도 노예가 되지 않는다. 바울은 자족할 줄 아는 경건한 삶을 강조한다(Witherington III, 199). 경건의 실천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다. 종교개혁 후기부터 수세기 동안 화란개혁교회는 경건의 연습을 표지로 삼았다(Osterhaven, 215). 개혁주의 교회는 16세기 이래로 오늘날까지 이 경건의 실천을 중시해 왔다.

3. 거룩한 공동체의 실현

칼빈주의는 그 시작부터 “거룩한 공동체”를 만드는 데 목표를 두었다. 칼빈주의의 관심은 모든 불의한 것들로부터 구속받아 정결해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소유로서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사람에게 있었다.

개혁주의 전통의 가장 기본적인 특징은 하나님 중심적 사랑과 삶이다. 성경은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과 인간의 책임, 하나님의 선택과 인간의 결단 두 가지를 모두 말하고 있다. 칼빈주의자들은 이런 상관관계의 둘째 부분을 부인하지 않는다. 다만 앞부분, 곧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를 강조할 뿐이다. 개혁주의는 하나님의 주권, 섭리, 선택, 예정에 관해 더 자주 언급한다(Hesselink, 142).

칼빈사상의 중심 주제는 부란 형제들을 돕는 데 사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것이다. ‘하나님이 만물의 주인이시다’라는 것이 재물에 대한 성경의 입장이다. 하나님은 그분의 뜻에 따라 재물을 사용하실 수 있다. 성경은 재물, 특히 과도한 재물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방해가 된다고 가르친다(Witherington III, 249).

칼빈이 제네바의 부자들에게 요구했던 것은 금욕주의가 아니라 사랑의 규칙이었다. 칼빈은 “그대들의 풍요로움은 지나친 무절제를 위하여 낭비하라는 것이 아니라 형제들의 궁핍함을 완화시키는 데 사용하라고

맡겨진 것임을 생각하도록 하라.”고 권면했다(Graham, 95-96).

4. 사회적 책임의 수행

칼빈은 모든 인간들에게 공평한 재물 분배를 마련해놓고 계시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주장했다. 칼빈의 가르침들은 그리스도의 교회를 가난한 사람들 편에 서게 하고 있다. 공동체에 유익을 주는 것만이 선한 노동이라는 것이다. 상업은 어떤 종류의 노동과 마찬가지로 선하다. 성도의 모든 행위는 사회를 위한 공익적 수단이 되어야지 사회적 압제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Graham, 98-118).

오히려 구속받은 성도들은 우리 사회를 하나님의 뜻에 따라 관리해야 할 책임을 갖고 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향해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것은 다음과 같은 3가지 이유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Osterhaven, 223).

첫째, 그리스도인들은 개별적으로 그리고 집단적으로 세상에서 화해의 대행자들이 되도록 부름을 받았다. 복음을 세상에 선포하는 것이 교회의 책임이다.

둘째, 교회는 세상 속에서의 역동적인 증인이 되어야 한다.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대사로서 섬기기 위해 구원을 받았다.

셋째, 이 시대는 심각할 정도로 세속주의가 만연해 있다. 마이런 B. 펜너(Myron B. Penner)는 “이제 우리는 문화적으로나 철학적으로 포스트모더니티의 가운데 위치하고 있다. 그것이 무엇을 가져올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될지 우리는 아직 알 수가 없다. 그러나 책임감 있고 사려 깊은 기독교인들은 포스트모더니티로의 전환을 무시하거나 그것으로부터 후퇴하지 않고 그것이 믿음에 있어서 가지는 의미들을 다루어야 하며 그것의 문제들을 해결해 가야만 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신현수, 261-262).

IV. 결론

1. 연구의 요약

오늘날 소비주의로부터 거센 도전을 받고 있는 기독교인과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종교개혁의 유산인 개혁주의의 원리와 정신이 요청된다. 특히 기독교인이 하나님의 선한 의지와 나라를 건설하기 위한 위대한 사명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성경주의적이며, 칼빈주의 세계관의 정립이 시급한 과제이다(윤종훈, 260).

절제와 검소한 생활을 추구하는 것은 칼빈 정신의 근본이다. 개혁주의는 소비주의의 폐해를 지적하고 있으며, 그것을 불식시켜 나갈 수 있다. 종교개혁시대에서는 근검과 절약을 미덕으로 간주한 반면, 오늘날 소비사회에서는 쾌락과 소비를 미덕으로 생각한다. 세속적 소비주의 시대에서의 현명한 그리스도인의 소비생활에 절약과 절제가 우선적으로 요구되는 실천 행위라 할 수 있다.

요컨대, 칼빈의 정신과 개혁주의 원리는 범사를 하나님의 주권 하에 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다. 물질은 하나님 위에 두는 것으로부터 하나님의 주권 하에 두어야 한다. 하나님 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것을 경계하며, 탐심을 말씀과 성령의 제어 가운데 두어야 한다. 현대 기독교인들이 진정으로 개혁주의의 원리와 정신으로 무장한다면, 세속적 소비주의를 능히 극복하고,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으로 본다.

2. 연구의 의의와 시사점

개혁주의의 실천을 통해 세속주의의 극복을 시도한 본 연구는 세속주의로부터 도전받고 있는 현대 교회와 기독교인들에게 신앙의 도전에 대한 극복 가능성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를 갖는다고 볼 수 있다. 현대 기독교인들이 종교개혁의 전통인 개혁주의의 원리를 이해하고 실천함으로써 현대의 세속적 소비

주의의 도전을 능히 이겨내고, 기독교인으로서 경건과 책임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인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세속적 소비주의가 내포하고 있는 불신앙적 요소와 위험성을 지적하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 개혁주의적 실천을 모색했다. 이런 점은 세속주의의 도전에 대해 극복 방안을 연구하고 있는 연구자, 목회자 그리고 일반 성도들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리라고 본다. 본 연구는 오늘날 개혁주의 원리에 대한 이해와 실천을 통해 세속적 소비주의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은 세속주의의 도전에 대한 대안은 성경에 찾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현대 자본주의 사회가 배태하고 있는 세속주의적 문제들을 제대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성경으로 돌아가라는 종교개혁적 전통과 오직 성경(Sola Scriptura)을 지지하고 있는 개혁주의 원리와 실천을 회복해야 한다는 점을 본 연구는 시사하고 있다.

<참고문헌>

- 강성영(2007), “소비사회의 인간 이해: ‘광고’를 통해 본 욕구와 한계의 변증법,” 신학논총, 138, 203-224.
- 김선일(2012), “맥도날드화와 기독교 세계관,” 『신앙과 학문』, 17(4), 7-31.
- 권진관(1992), “강화되는 자본주의의 원리와 기독교의 과제,” 『기독교사상』, 36(12), 25-32.
- 윤중훈(2005), “칼빈주의 세계관과 문화명령에 관한 개혁주의적 소고,” 『신학지남』, 72(4), 257-284.
- 신현수(2014), “<선교적 교회운동>에 대한 개혁주의 선교신학적 비평적 이해,” 318, 『신학지남』, 258-271.
- 조용훈(2008), “아동의 소비주의에 대한 기독교윤리학적 의견,” 기독교사회윤리, 16, 267-289.
- 문병호(2013), “개혁주의란 무엇인가?: 신학과 신앙의 요체,” 개혁논총, 27, 61-93.
- Jonathan Bonk, 박용규(2011), “교회의 새로운 길 진단,” 『국민일보』, 12월 8일자.
- Ben Witherington III(2010), Jesus and Money, 김미연 역(2016), 『예수님의 경제학강의』, 서울: 넥서스.
- John Hesselink(1983), On Being Reformed: Distinctive Characteristics and Common Misunderstandings, 최덕성 역(2003), 『개혁주의 전통』, 서울: 본문과 현장사이.
- M. Eugene Osterhaven(1971), The Spirit of the Reformed Tradition, 최덕성 역(2005), 『개혁주의 전통의 정신』, 서울: 본문과 현장 사이.
- Michael S. Horton(2002), Where in the World Is the Church?, 윤석인 역(2014), 『개혁주의 기독교세계관』, 서울: 부흥과 개혁사.
- W. Fred Graham(1971), The Constructive Revolutionary John Calvin, 김영배 역(1986), 『건설적인 혁명가 칼빈-사회와 경제에 끼친 영향』, 서울: 생명의 말씀사.